

· 의과대학생의 성별(gender)이 전공 과목 선택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 김 승 준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과거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 여학생은 절대적 소수 집단의 일원으로서 매우 특별한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의과대학생 중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늘기 시작하면서 몇몇 학교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은 학년이 생겨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여자 의사의 증가는 필연적이다. 그러므로, 과거 절대적 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남자 의사보다 만나기 힘들었던 여자 의사들이 앞으로는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라 쉽게 예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찍이 70년대 이후로 의과대학 여학생의 급격한 증가를 경험한 미국의 경우 1997년 현재 여의사의 비중의 23.0%이며, 2000년 현재 전국 의과대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 45.8%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의사가 활동하는 전문 과목은 남자 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의과대학의 교수로 재임하고 있는 여성의 수 또한 남성에 비해 확연히 적다. 이러한 미국의 현실은 여학생의 수적 증가와 다양한 전공 분야로의 진출 및 해당 전공 분야에서의 승진이 별개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국내 및 국외의 기존 연구들은 앞서 언급한 남녀 의사 간 수평적 수직적 분배 불균등을 성격 특성, 개인적 가치관, 성차별과 성희롱 등의 다양한 시각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현재의 성적 불균등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 원인들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 1) 성별과 전문과목 선택: 국내 연구 고찰
- 2) 성별과 전문과목 선택: 외국 연구
 - ① 성격 특성
 - ② 가치관
 - ③ 재학시절 중 성별 격리
 - ④ 재학시절 중 성차별과 성희롱

3. 연구 대상 및 방법

연구 주제와 관련된 국내 및 해외 저널에 대한 종합적이고 비판적인 고찰을 시도하였다.

본론

1. 성별과 전문과목 선택: 국내 연구 고찰

현재까지의 국내 논문 중 의과대학생의 전공과목 선택에 성별이 미치는 영향만을 중점적으로 다룬 논문을 찾지는 못하였다. 다만 가능한 여러 요인들 중 성별을 포함한 연구 논문을 찾을 수 있었다. 김형준 등이 발표한 “의과대학생의 전공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는 개인이 특정 전문과목을 선호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사회인구학적 구성, 입학동기 특성, 개인의 특성, 과의 특성,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하면서 이중 사회인구학적 구성의 하위 요소로 성별을 포함하고 있다. 동시에 연구자들은 종속변수인 전문과목을 내과계와 외과계(산부인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포함), 주요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과 비주요과목, 인기과(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정신과)와 비인기과, 임상학과와 기초의학(생화학, 생리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해부학, 병리학, 약리학, 예방의학, 의용공학, 법의학) 이상 4가지로 범주화하였다. 논문에서 성별이 전공과목 선택에 미치는 영향만을 간추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과계와 외과계에 대한 선호도 분석 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요인에서 성별과 학비부담자의 월소득이, 개인적 요인에서 가치관이나 직업관이, 사회경제적 요인에서는 경제적 수입, 의료사고 위험정도가 의미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내과계를 2.970배 선호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여성에서 가정생활과 양육부담이 크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둘째, 주요과목과 비주요과목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 요인에서는 성별, 본과 3학년인 경우, 개인적 요인에서는 가치관이나 직업관이, 과의 특성요인에서 미래 전망, 사회경제적 요인에서는 경제적 수입, 의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영향을 주었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주요과목을 더 선호하는 결과는 주요과목이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비교적 여학생들의 지원이 많은 과목이 포함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자들은 파악하였다.

셋째, 인기과와 비인기과의 선호도 결과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에서는 성별, 학비 부담자의 월소득, 개인적 요인에서는 성적, 과의 특성요인에서는 선택한 분야의 특성과 레지던트 수요 등이 의미있는 영향을 주었다.

넷째, 임상학과와 기초의학에 대한 선호도 결과에서도 성별이 의미있는 영향을 주었다.

결론적으로 성별은 내과계와 외과계, 주

요과목과 비주요과목, 인기과와 비인기과, 임상학과 기초의학이라는 4가지 구분의 전문과목 선택에 모두 영향을 주었다. 구체적으로 남자는 인기과의 선호도가 높았고, 여자는 임상, 내과계, 주요과목 등을 더욱 선호하였다. 이 논문에서 4가지 구분의 전문과목 선택에 모두 영향을 끼친 독립변수로는 성별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의과대학생의 성별은 전문과목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전문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찾아내는 것에 우선적인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성별과 같은 요인들이 전문과목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한 코멘트 수준 이상의 논의를 진행시키지 않고 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국내 논문 중 성별이 의과대학교에서 전문과목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한 논문은 이 논문이 유일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주제를 다룬 외국 연구들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2. 성별과 전문과목 선택: 외국 연구

1) 성격 특성

Barbara Buddeberg Fischer 등이 발표한 "The influence of gender and personality traits on the career planning of Swiss medical students"은 스위스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과 성격 특성이 학문적 성취와 이후 직업 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논문이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성격 특성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의과대학교 여학생들은 유용성, 관계 의식, 공감과 같은 사교적으로 바람직하며 공동사회적인 것으로 기술되는 표현 변인(expressive traits) 점수를 나타냈으며, 가족 책임감, 편리한 작업 시간, 직업 안정성과 같은 직업 외적인 관심들에서 더욱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남학생들은 독립성, 결단성, 자기 확신, 활동성과 같은 수단 및 작용 변인(instrumental, agentic trait)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승진, 수입, 위신에 대한 추구로 기술되는 외적 직업 동기(extrinsic career motivation)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둘째, 성별이 학위논문과 전문 과목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우선 학위논문의 경우, 응답자의 3/4이 이미 학위논문을 썼거나 쓰고 있는 중이라 대답하였다. 여학생들의 완성률 혹은 진척률이 남학생들보다 현저하게 높았으며 남학생들이 실험적이고 경험적인 논문 작업을 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치료 중심의 논문 작업을 훨씬 더 유의미하게 선택하였다. 학위 논문의 토픽에 대한 남녀 의과대학생의 선호도 차이는 남녀 의사들이 서로 다른 의학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미리 보여 준다.

스위스 의과대학생의 반수 이상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자신의 전문 과목을 선택하며, 이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많은 여학생들이 앞으로 수련을 받을 자신의 전문 과목을 선택한다. 여학생들은 수련 초기에 가정과 의사직을 결합시키려 할 때

수많은 장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여학생들은 심지어 의대 재학 동안에 어떠한 전문 과목이 가정을 영위하는 것을 포함하는 직업 패턴에 적합한지 생각하기 시작한다. 현 스위스의 여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문 과목은 내과이며 소아과, 부인과, 일차 진료(primary care)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러한 전공 과목들은 환자 중심 정도가 상당히 큰 전공 과목들로 의사 환자 관계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전공 과목에 대한 여학생들의 선택은 성별 도식(gender schemas)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성별 도식은 환자들과 친밀하게 일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포함한다. 한편 외과계에 비해 근무조건이 보다 유연하며, 가족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데 보다 적합하기 때문에 개업을 하거나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것이 보다 쉬운 이러한 전공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인과의 경우 오랜 시간과 힘든 외과적 작업 부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과를 전공하는 젊은 여성 의사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부인과는 남성 우위 전공 과목에서 여성 우위 전공 과목으로 완전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스위스의 경우 2001년 부인과 학위를 받은 사람의 2/3가 여성이었다. 독일의 경우 부인과와 산과 의사의 46%가 여성이다. 이러한 성별 변화는 여성은 여자 의사에 의해 진료 받아야 한다는 태도가 1980년대 후반 이후 나타났기 때문이다.

젊은 남자 의사들은 외과와 첨단 기술 관련 전공을 선호한다. 남성의 경우 외과를 가

장 선호하며 내과, 일차 진료, 마취과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외과는 명성과 보수 모두 매우 높은 전공 과목으로 명성과 보수 같은 특성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보다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정 전공 과목에서 불균등한 성별 분포는 성별 분리된 전공 과목 선택 혹은 성별에 따른 전공 수련 접근의 제한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Wetterer는 여성 의사들이 종종 성별 관련 배제 메커니즘을 경험하며 이러한 메커니즘은 외과계에서 볼 수 있듯이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는 이론을 세웠다. 외과에서 전공 수련을 시작하였으나 후에 전공을 바꾸는 여자 의사들의 수에 대한 통계는 없다. 유럽연합이나 미국의 경우 학위를 완전히 마친 여성 외과 의사의 비율은 최대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요약하자면 남학생과 여학생은 서로 다른 직업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여학생들은 자유롭게 가정을 설계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기 위해 레지던트 과정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낼 것 또한 포함되는데 이는 스위스에서 학위 논문이 전문의 자격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여학생은 다루기 쉬운 의료 분야이면서 직업적 장애물이 거의 없거나 예측가능한 전공 과목을 선택한다. 반면 남학생은 전문의 자격뿐만 아니라 명성 있는 전문가의 지위를 동경한다. 잠재적인 장애물에 대한 고려는 남학생들의 전공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학술적 성공과 직업 계획의 결정

요인을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자들은 학술적 성공과 직업 계획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을 분석하기 위해 역행 모델(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이 의사 면허를 따기 바로 직전이었던 첫 번째 측정시기의 경우 여학생들과 높은 수단성(instrumentality) 및 높은 외적 직업 태도(extrinsic career orientation)을 지닌 학생들이 논문 작업에서 더 많은 진척을 보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한 이유로는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일찍이 고등학교 시절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처럼 보다 성실하다는 것과 스위스 남학생들의 경우 재학 기간 중 방학을 이용하여 의무 군복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재학 중에 논문에 투자할 시간이 적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목표 및 직업 지향적인 학생들의 경우 성별에 상관없이 논문 작업에 더 많은 진척을 보인다는 부가적인 결과는 질문지의 구조에 부합한다.

여성이라는 성별 요인은 경력을 쌓는 과정으로 전문 과목 선택 및 결정 여부를 예측하게 만드는 두 번째 인자였지만, 높은 자존심과 특히 높은 내적 직업 동기(intrinsic career motivation)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현재 특정 전문 과목의 전문의 실습 계약을 알아내기란 매우 어렵고 학생들은 의사자격증을 따기 전에 2-3년의 세월을 보내야 한다. 그러므로 여학생들의 경우 특정 시기에 가족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경험하는 시간적 압력 때문에 전문의 수련에 대한 계획을 훨씬 일찍 계획하는 것처럼 보인다.

많은 선행 연구들은 여성들이 수직적뿐만 아니라 수평적 분배에 있어서도 의사 동료들과 충분히 통합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에 관해 논의해왔다. 직업적 지향의 성별 차이는 사회화의 기능으로서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도 있지만 또한 외과와 같은 특정 영역에서 구조적으로 작동하는 장벽이나 폐쇄 메커니즘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Gjerberg는 두 개의 노르웨이 의사 코호트를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에서 수평적 분리에 관한 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였다. 다른 서구 국가에서도 동일한 발전이 포착되고 있다.

성별 요인은 또한 외과를 전문 과목으로 선택할 것인지의 여부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외과를 선택할 확률이 훨씬 높았다. 게다가 성별에 관계없이 가족 책임감이나 여가 시간 활동등과 같은 직업 외적인 관심이 덜 중요한 사람일수록 외과계를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외과계의 경우 100%의 작업량 이상의 헌신만이 성공을 보장한다는 가정이 여전히 적용된다. 따라서 전문의 수련 조건과 조직적 구조가 남성성의 라이프 스타일에는 적합한 반면, 가정을 갖기를 원하는 여성에게는 부적합할 수 있다.

2) 가치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일반 외과에 대한 흥미의 저하는 이 분야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켜 왔다. Theresa M. Wendel 등이 발표한 "Are there gender differences in choosing a surgical career?"라는 논문은 전문 과목 선택에 영

향을 미치는 요소를 성별에 따라 분석하면서 앞서 언급한 일반 외과에 대한 흥미 저하가 여성 의과대학생의 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수련 기간 중 라이프 스타일이 일반 외과를 전공으로 선택하지 않는 학생에게 가장 영향적 있는 요소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고려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공유되었다. 그 외 일반 외과를 전공으로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 수련 기간과 업무 라이프 스타일을 들었다. 즉 외과 수련을 받지 않기로 결심하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수련부터 업무에 이르는 외과직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다. 저자들은 “이상적 세계”에서는 외과계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흥미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현재 의과대학생 사이에서 외과에 대한 흥미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생각을 재강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흥미는 외과 수련과 업무가 요구하는 시간에 대한 그들의 고려들을 뛰어넘을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다.

외과를 선택하는 남녀 의과 대학생들이 전공을 결정할 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선택된 요소는 자신들이 선택한 분야의 지적 요구였다. 여학생들에게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자신의 선택한 과의 교수진이었다. 외과에서 역할 모델의 영향력과 여성 역할 모델의 부족은 과거에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고 아마 학생들의 전공 과목 선택에서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일 것이다. 남학생의 경우 두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업무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82%의 남학생

들이 업무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한 것에 비해 여학생이 이 요소를 선택한 비율은 69%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으나 매우 흥미로웠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업무 라이프 스타일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논문에서 외과를 선택한 여성들의 수는 산과/부인과를 선택한 여성의 수와 동일하였다. 산부인과는 조절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과가 아니며 전공기간 또한 매우 길다. 조사 대상 기관의 경우 더 많은 여성 주치의들이 산부인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존재가 더 많은 수의 여학생들이 산부인과에 들어오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자들은 산부인과가 자녀를 가진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학과임을 발견하였다. 부가하자면, 조사 대상 기관의 많은 산부인과 레지던트들이 최근 몇 년 간의 레지던트 수련기간 동안 자녀를 낳았다.

외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과를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과 비슷하였으나 차이점 또한 발견되었다. 외과를 선택하는 여학생들은 선택실습, 교수진, 지적 요구가 과를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외과를 선택한 여학생들은 업무 라이프 스타일에 부가하여 위신과 구직 기회와 같은 요소들이 그들의 결정에 기여를 했다고 보다 자주 응답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남학생들은 선택실습과 교수진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레지던트 간의 상호작용이나 수입 잠재성 또한

강조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위신과 수입과 같은 요소들이 일차 진료보다는 외과와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 외과에 대한 흥미의 감소는 여성 의과대학생의 증가 및 그들의 다른 우선순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자들의 연구는 이러한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다. 저자들은 전공 과목 선택시 남녀 의과대학생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동기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여학생 중 실질적인 비율이 조절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지 않는 학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4명의 여학생 응답자 중 39명의 학생이 외과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와 같은 “조절 불가능한 라이프 스타일” 영역의 학과를 선택하였다. 72%라는 실질적인 비율에게 라이프 스타일은 유일한 결정인자가 아니었다.

일반 외과는 여전히 가장 혹독한 수련 프로그램을 가진 전공 과목 중 하나이다. 정형외과 또한 매우 힘든 수련기간을 요구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정형외과 의사가 일반외과 의사보다 후하게 배상을 받으며 수련 기간 중 그들의 노력은 금전적으로 보답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비인후과나 비뇨기과 같은 외과의 하부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은 처음에는 일반외과에 흥미를 가졌었다. 이비인후과나 비뇨기과 전공의 또한 일반외과 전공의와 유사한 수련을 필요로 하지만 수련기간 후 보다 조절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전공은 즉각적인 평가와 치료가 필요한 응급질환이 보다 적은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

하여 보다 수월한 당직 스케줄이 가능하므로 더 많은 병원 밖 생활을 가질 수가 있다.

주 80시간 의무 근무제 또한 또 다른 흥미로운 요소이다. 이 제도가 일반 외과에 대한 흥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현재 주 80 시간 의무 근무제는 뉴욕 주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레지던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계속되고 있다. 만약 라이프 스타일이 외과에 대한 흥미 감소의 주요한 이슈라면 주 80시간 근무제에 함께 외과에 대한 흥미의 소생이 관찰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많은 요소들이 의과대학생 전공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중 두드러진 요소는 레지던트 기간 동안의 라이프 스타일과 외과계의 높은 시간적 요구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서 차이가 없었다. 현재 의과대학생들은 일터 밖에서의 삶에 더욱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이러한 우선권에 대한 변화가 앞으로 일반 외과에 어떠한 영향을 줄 지는 좀더 기다려 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3) 성별 격리

지난 30년간 미국에서 전체 의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의 6.8%에서 1997년의 23.0%로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2000년 의대에 진학한 여학생의 비율이 45.8%임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여성 의사의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의사들은 남성 의사에 비해 상대

적으로 적은 수의 세부 전공 과에 분포되어 있으며 수입 또한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종신 교수직을 얻게 될 가능성 또한 상대적으로 적다.

Ann Boulis, Jerry Jacobs, J. Jon Veloski는 그들의 논문 “Gender Segregation by specialty during medical school”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이 전공 선택에서 성별 분리가 의미 있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리가 의대 재학 시절에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이 전공 선택에서 성별 분리가 증가하는 의미 있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남성의 경우 외과, 병원 전문과(마취과, 병리학과, 방사선과), 내과로 집중되는 반면 여성의 경우 소아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로 몰리는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Reskin과 Roos가 주창한 재분리 가설에 합당한 것으로, 여성의 증가된 의료계 진출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세부 전공과로 여성이 집중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의대 커리큘럼, 의료제도의 조직 및 재정, 여성의 지위의 변화에 대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반응 방식 차이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성별에 기반한 분리의 증가는 의대 재학 중에 발생한다는 것을 저자들은 발견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주로 특별한 세부 전공에 대한 선호 없이 의과 대학에 진학하여 결국에는 기존의 분리된 방식으로 세부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전체 학생 중 상당부

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의대 1학년 때 선호 학과를 가진 학생들 사이에서 분리의 정도는 4학년이 되어서도 의미 있게 변화하지는 않았다. 이 집단의 분리 정도가 재학시절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개별적인 선택은 매우 역동적이다. 그러나 일반 여학생과 남학생이 분리된 방식으로 그들의 선호 전공을 떠나가고 똑같이 분리된 방식으로 새로운 전공을 선택하기 때문에 1학년 때 세부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의 흐름들은 의대 재학 기간 동안 발생하는 분리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저자들은 자신들의 분석에서 나타난 경향들이 기대치 않은 것들이며 고도로 효율적인 의료 인력에 관련된 목표들과는 상충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개별 의과 대학들이 과를 선택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카운셀링을 할 때 이러한 경향들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4) 성차별과 성희롱

앞서 고찰한 Ann Boulis 등의 논문 “Gender Segregation by specialty during medical school”의 결론 즉 전공 선택에서 성별 분리가 의미 있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리가 의대 재학 시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결론을 마주 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주제가 다름아닌 의과대학에서 발생하는 성차별과 성희롱 문제이다. 성격 특성이나 가치관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 앞에서 고찰한 연구 중에는 이러한 성별 차이를 부정하는 연구 결과를 보이는 것도 있다. 이러한

차이가 전공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들 요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내재적인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4년이라는 짧은 의대 재학 기간 동안 전공 선택의 성별 분리를 일으키는 직접적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Lois Margaret Nora 등의 발표한 논문 "Gender discrimination and sexual harassment in medical education: Perspectives gained by a 14 school study"은 남녀 의과대학생들이 학술적 혹은 비학술적 상황에서 노출되거나 인지하는 성차별과 성희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저자들에 따르면 많은 수의 의과대학생들이 재학시절 성차별과 성희롱을 경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외부사회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성차별과 성희롱을 의대 재학 시절 전반에 경험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 결론에서만 가지 예외가 존재한다. 남학생들의 경우 실습 과정에서 학내 환경 밖에서 보다 더 많은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해 들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성차별과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였다.

몇몇 학생들은 여러 번의 성차별과 성희롱을 짧은 기간 동안 경험했다고 진술하였다. 과학적, 임상적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태도와 품행의 발전을 강조하는 환경 속에서 이러한 성차별과 성희롱의 사건들은 특히 해로울 수 있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에 대한 학대는 그들의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의학

교육의 차원에서 이러한 이슈에 대한 부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여성은 적어도 한번 이상의 성희롱과 성차별을 특히 사적인 경험의 유형으로 경험할 확률이 남성보다 높다. 그러나 놀랍게도 많은 수의 남학생들 또한 성차별과 성희롱을 사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남학생들은 성차별과 성희롱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나의 이슈라 생각하고 있으며 몇몇 남학생들은 그들이 역차별이라 정의하는 행동들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연구들은 성차별과 성희롱에 관한 보고에서 남성과 여성이 차이를 보이는 것이 성차별과 성희롱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지각과 연관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저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성차별과 성희롱을 본 적이 있다거나 그것에 관해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남녀의 비가 서로 비슷하였다. 이는 성차별과 성희롱이라는 단어들만 포괄하고 있는 행동에 관한 남녀 간의 동의 정도가 커지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성차별과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의 두 배에 달한다는 사실은 똑같은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정의에 의한 것으로 설명될 수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험들이 교육 환경상 진정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성별과 관계 없이 학생들은 어떠한 세부 전공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적게 성차

별과 성희롱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의견 일치를 보였다. 학생들은 일반외과에서 가장 많은 성차별과 성희롱을 감지하였고 그 다음이 산부인과였다. 여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남학생들에 비해 좀 더 다양한 전공에서 성차별과 성희롱을 감지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남학생들은 소아과와 산부인과에서 여학생들보다 더 많은 성차별과 성희롱을 감지하였다. 남학생들이 소아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에서 보다 많은 성차별과 성희롱이 퍼져있다고 보고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러한 차이들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반화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환자의 특징, 일상 업무, 간호사 및 가족들과의 상호 작용, 스트레스의 종류, 상관의 성별, 동료들과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이러한 전공의 어떤 특면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자세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성차별과 성희롱의 발생이 다양한 수련 및 업무 상황들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인지하였다. 성차별과 성희롱은 지역 병원보다는 학술의료센터에서 더욱 널리 퍼져 있었으며 외래 진료실에서 가장 적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인지 차이는 수련 환경과 업무 환경의 실제 차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세부 전공과 관련이 있으며 다양한 환경 하에서 학생들이 마주치는 전공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정의학과 실습은 전형적으로 외래 진료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 외과와 산부인과 실습은 학술의료센터에서 이루어진다. 앞으로 이러한 결과가 실습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반영하는가, 세부 전공을 반영

하는가 아니면 이 둘 모두를 반영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수련 환경이 입원 환자 중심에서 외래 환자 중심으로 이행되는 현 시기에 많은 외래 환경에서 학생들의 상대적인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학생들의 간단한 논평을 살펴보면 많은 학생들이 의학교육과 수련 과정에서 성차별과 성희롱을 인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논평들은 수련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 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을 주로 담고 있었다. 또한 몇몇 학생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환자들의 이야기 또는 행동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성적이 방식으로 행동하는 어려운 환자들에 대한 커리큘럼 상의 논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의과대학생들은 의학 수련 기간 동안 성차별과 성희롱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경험을 보거나 듣고 있다. 의과대학생들은 이러한 성차별과 성희롱을 학문적 활동, 세부 전공 영역, 의학 수련 환경에 걸쳐 있는 실제 현상으로 지각하였다. 특정 전공 영역에서 이러한 이슈에 대해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의과대학생들의 수련 경험을 향상시키고 의학교육자들이 전문직업의식을 가르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저자들은 제안하고 있다.

결론

성차가 전공 과목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성차에 기반한 성격 특성의 차이나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인해 특히 외과 영역에서 남학생의 진출이 두드러지며 여학생의 진출이 그렇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외과적 특성이 강한 산부인과를 외과와 분리시켜 통계를 뉘으로써 외과계에 진출하는 여학생의 비율을 과소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당연시 되어왔던 의과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격 특성의 차이 및 가치관의 차이에 의문을 던지는 연구 또한 서구 국가에서는 하나 둘씩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의사들의 진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평적, 수직적으로 남성 동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여성 의사들의 현실 이면에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성차별과 성희롱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앞서 검토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의과대학 재학 중 수많은 학생들이 성차별과 성희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간접적 경험이 이후 전공과목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미국의 남자 의사들은 외과, 병원 전문과(마취과, 병리학, 방사선과), 내과로 집중되는 반면 여성 의사의 경우 소아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로 몰리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데 남성들이 선호하는 이들 전문 과목들은 의과대학생들이 성차별이나 성희롱에 노출되는 빈도가 상위 5위 안에 드는 과목들일뿐만 아니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욱 많은 성차별과 성희롱을 경험하는 과목이기도 하다. 반면 여성들이 선호하는 전문과목들은 산부인과를 제외하고는 성차별과 성희롱을 적게 경험하는 과목일 뿐만 아니라 남녀가 느끼는 성차별과 성희롱의 차이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 산부인과의 경우 성차별과 성희롱의 노출 정도는 일반 외과에 이어 2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성차별과 성희롱의 노출을 호소하고 있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의과대학생들이 보고하고 있는 성차별과 성희롱이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에 의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이러한 성차별과 성희롱이 의과대학생의 전공 과목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의료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차별과 성희롱으로 인해 의과대학생들이 적어도 학습 능력 면에서 커다란 장애를 겪고 있음은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 현재 Stanford와 같은 미국의 대학에서는 교수진과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별 이슈와 관련된 교육 및 성희롱을 줄이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의과대학의 환경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전개한 논의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지에는 의문이 따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의과대학생의 전공 선택에 관한

논의 자체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성별이 이러한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여타 서구 사회에 비해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를 강조하는 사회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 의과대학에서 적지 않은 성차별과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하루 빨리 이루어졌으면 한다.

참고문헌

김형준, 박서진, 김정은, 박은철, 이후연, 의과대학생의 전공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의학교육: 제15권 제2호, 2003.

임기영, 조선미, 의과대학생의 전공선택과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의학교육: 제14권 제2호, 2002.

Buddeberg Fischer B, Klaghofer R, Abel T, Buddeberg C, The influence of gender and personality traits on the career planning of Swiss medical

students, Swiss Med Wkly. 2003;133:535-540.

Wendel TM, Godellas CV, Prinz RA, Are there gender differences in choosing a surgical career?, Surgery. 2003 Oct;134(4):591-6; discussion 596-8.

Baxter N, Cohen R, Mcleod R, The impact of gender on the choice of surgery as a career, Am J Surg. 1996 Oct;172(4):373-6.

Boulis A, Jacobs J, Veloski JJ, Gender segregation by specialty during medical school, Acad Med. 2001 Oct;76(10 Suppl):S65-7.

Nora LM, et al, Gender discrimination and sexual harassment in medical education: Perspectives gained by a 14 school study, Acad Med. 2002 Dec;77:1226-1234.

Jacobs CD, Bergen NR, Korn D, Impact of a program to diminish gender insensitivity and sexual harassment at a medical school, Acad Med. 2000 May;75:464-9.